

허황옥전승의 비교민속학적 가치

Study on Truth of the Silkroad and Heo Hwang-ok

저자 (Authors)	이창식 Lee, Chang-Sik
출처 (Source)	비교민속학 49 , 2012.12, 11-43(33 pages) ASIAN COMPARATIVE FOLKLORE 49 , 2012.12, 11-43(33 pages)
발행처 (Publisher)	비교민속학회 Asian Comparative Folklore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77249
APA Style	이창식 (2012). 허황옥전승의 비교민속학적 가치. <i>비교민속학</i> , 49, 11-4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9 10:3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허황옥전승의 비교민속학적 가치

이창식*

- I. 머리말
- II. 실크로드 고대교류와 허황옥전승의 가치
- III. 김수로신화에서 허황옥신화로 바뀌임기와 팩션
- IV. 맺음말

[국문초록]

『가락국기』와 연결된 고대 실크로드 요소는 일찍 주목되었다. 상인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재화를 축적하면서 문화를 교류시키는 중심에 있었다. 고대 승려들도 실크로드를 따라 구도의 여행을 하였다. 이처럼 고대인들은 교류 차원에서 실크로드 여행을 하였다. 길은 문화의 다양한 통로인데 길 위에서 문화는 지속과 변화를 추구한다. 실크로드는 문화의 이동과 정착이 이루어진 상징루트이다. 고대부터 가야 김해는 실크로드의 문화변동과 문화접촉이 이루어져 교류 플랫폼의 기능을 하였던 곳이다. 문화권역 구분 역시 길을 통해 이루어졌다. 실크로드의 영역으로 인해 중족과 지역, 이념과 종교의 경계에 따라 독창적인 문화유산을 창출하였다.

이 글은 김수로신화, 허황옥전승에 대한 기존 성과에 대한 오해의 진단과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한 사례로 김병모 고고민속학 등 인도와 중국 관련 문헌 읽기에 집중하였다. 고유적인 문화인자도 고대일수록 제의와 신화의 국면과 맞물려 있고 무엇보다 도래신화의 경우에, 비교의 교류적 요소도 있다. 허황옥(許黃玉)신화는 아유타국(아요디아)에서 출발한 실크로드를 통해 만들어진 전승물이다. 실크로드의 개척과 소통으로 인해 허황옥집단의 집단이주와 김수로-허황옥의 계시 위주의 다문화형 국제결혼이 이루어졌다. 허황옥의 가야-김해 귀착은 실크로드 다문화

* 세명대학교

의 허브와 플랫폼의 상징을 보여주었다.

허황옥신화는 이주와 정착, 교류와 충돌, 소통과 포용, 통과와 융합 등의 문화현상을 보여준다. 고유적인 문화인자도 고대일수록 제의와 신화의 국면과 맞물려 있고 비교민속학(比較民俗學)의 교류적 요소와 원형 화소도 있다. 비교민속학적 시각에서 고종의 작업과 팩션(faction)의 장르적 인식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김수로신화에서 허황옥신화로 바뀌어 읽는 팩션의 접근 전략은 영상스토리텔링의 창작 지평을 확장하게 한다. 실크로드 위의 허황옥신화는 비교유산의 창조 가치, 곧 『가락국기』의 혁고정신(革古鼎新 : 비단 짜기, 불교 전파, 배경주 등) 그 자체를 드러낸다고 증명하였다.

[주제어] 실크로드, 김병모, 허황옥(許黃玉)신화, 아유타국(아요디아), 비교민속학(比較民俗學), 팩션

I. 머리말

실크로드는 문화교류의 통로 구실을 하였다. 육로와 해로(海路)의 발견과 개척은 문화전파의 핵심이다. 실크로드에서 스텝로드-솔트로드까지 문화의 이동과 정착이 이루어진 과정이다. 고대로부터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문화변동과 문화접촉이 실크로드를 통해 전개되었다. 문화권역(文化圈域) 구분 역시 해로, 육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실크로드의 영역으로 인해 종족과 지역, 종교와 이념의 경계에 따라 독창적인 문화유산을 창출하였다. 실크로드의 화두를 통해 문화의 교류에서 오는 가치를 새롭게 주목한다. 실크로드 위의 허황옥(許黃玉, 33년~189년) 관련 전승물의 가치를 다시 읽는다. 고대 실크로드의 비교민속학적 관심으로서의 한 접근 방식이다.¹⁾

허황옥집단의 이주 흔적과 문화편입 추적을 통해 다시 그들의 진실된 실크로드를 다시 묻는다. 해로와 육로 위에서 말 걸기를 시작한 셈이다. 길 위에서 다시 과거를 보되 현재를 넘어 미래를 읽는다. 고유적인 문화인자도 고대일수록 제의와 신화의 국면과 맞물려 있으면서 아울러 외래적 교류 요소도 감지된다.

1) 이 글은 비교민속학회 인도 라다크 답사 때 한-인도 비교민속워크숍(델리 네루대학교, 2012. 7. 6.)에서 소개한 <허황옥전승의 오해와 진실>의 발표요지를 대폭 수정한 원고다. 답사 때 실크로드의 쌓어와 붉은 기, 성(性)민속을 주목하였다. 『Silkroad』(2009), 영어판 참조.

일찍 새로운 세계에의 길, 진리를 구하는 길, 미래생존을 준비하는 길 자체가 여전히 동서양의 보편적인 화두다. 실크로드의 길으로 보이는 사실만 가지고 신화의 세부 국면과 가치를 읽을 수 없다. 가락국(駕洛國) 이주신화(移住神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과연 상상력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의 방해물인가. 김병모 고고학자의 집요한 추적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결국 비교민속학적 인식과 팩션(faction)의 문화론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서양문화의 교류에는 다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상대적 우위와 일방적 점령 시각 경계-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비교민속학의 시각에서 볼 때 허황옥 바닷길의 키워드는 고대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충분하다. 비교민속학은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얻어진 구비전승, 행위전승, 물질전승 등의 구술사와 문헌집적을 통해 문화교류의 생활사를 정치하게 밝히는 데 있다. 고고민속학은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재구성하는 학문이다. 이에 비해 비교민속학은 기록된 자료에 의하여 집적된 역사민속문화유산을 대상 항목에 따라 비교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지금 여기의 민속학은 제 나름의 방법으로 현존하는 민족들의 관습과 구비전승 자료의 단순한 평면적 기술에서 한 단계 넘어서서 민족과 지역권의 역사적 문화적 복원과 민족문화의 과학적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게다가 통시대적 문화유산의 접촉과 교류에 대한 학문적 검증이 필요하며, 더구나 기존 인류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지구공동체 상생지향의 논리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교민속학은 실증과학의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본질이 없는 거짓 정신의 오류와 조작의 공허함에 자유로울 수 없다.

비교민속학의 연구에서는 당연히 물질문화, 정신생활, 사회생활의 집합적 총체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집적물을 이뤄내어야 한다. 다만 과학적 검증만 능사가 아니다. 비교민속학의 사실과 역사적 개연성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 허황옥전승을 통해 유물의 리얼 역사, 무형의 진실 역사, 교류의 충격과 정착의 문맥 관계, 원형과 변형의 미시적 개연성, 전통과 창조의 팩션(faction) 문제, 서구식 비교신화학의 도식 반성, 정치적 조작과 문화권력, 역사학과 고고학의 실증주의 함정, 분포상 유사민속의 DNA 교류 선입견 등을 두루 비판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해양유적의 현지구술사도 동시에 주목한다. 다만 인도와 중국 실크로드

의 기존 현지조사 미비로 허황옥집단의 원형민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하지 못했다. 『가락국기』 후반부를 현전하는 유무형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살펴본다. 옛길 위의 허황옥의 이주사 검증과 실크로드의 실증적 연구 극복 과제도 이러한 구체적 담론을 비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II. 실크로드 고대교류와 허황옥전승의 가치

고유양식에 대한 국수적 맹신과 외래양식의 무조건적 수용은 둘이 아니다. 뒤집어 보면 맞물려서 모방-창조-지속이라는 말로 변화해 왔다. 고유적인 원형과 외래적인 변형이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황옥전승의 세계유산적 가치가 있다. 그 이면에는 여전히 특수성과 보편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 경우에 실크로드의 교류라는 키워드로 양면성 가치를 해석하여 비교민속학의 통합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²⁾ 무엇보다 허황옥 등 바다 실크로드의 도래인 집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

허황옥전승 유형유적의 코드에는 교역시대 이후 탐, 무덤, 붉은기, 신어(神魚)가 있다. 주요 물품 코드에는 비단(능, 라), 금, 차, 소금, 쌀 등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⁴⁾ 실증적 생활문화에서 당대의 기제와 세계관이 녹아 있다. 무형의 코드에는 다문화 사회를 암시하는 계시형대의 국제결혼, 가야 세시일(歲時日), 떼마놀이, 구비신화 편린 불교적 요소 등이 있다. 허황옥의 정체는 실크로드로 귀결된다. 한때 제도권 역사관에서 신화사와 구술사가 온전히 대립받지 못했다. 신화 문맥답게 읽지 못했다.⁵⁾ 전승 텍스트 핵심을 다시 주목한다. 『가락국기』(전반부, 후반부 서사) 속의 허황옥전승을 새롭게 인식되는 이유도 생생한 문명교류사⁶⁾

2) 정수일, 『실크로드학』(창작과비평사, 2001), 13~45쪽; 민병훈, 『실크로드』, 『실크로드와 한국문화』(소나무, 2012).

3) 안경숙, 『바다를 통해 교류된 한국 고대문물』, 『항해와 표류의 역사』(숲, 2003), 259~266쪽.

4) 김병모, 『허황옥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역사의 아침, 2008), 43~89쪽.

5) 김병모, 『한국신화의 고고민속학적 연구』, 『유승국박사화갑기념동양사상논고』(간행위, 1983).

6) 정수일, 『고대문명교류사』(사계절출판사, 2001).

속의 창조적 유전자가 발견 때문이다.

1. 구간 집단의 생활.
2. 3월 계육일 구지봉에서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에게 임금을 맞이하도록 함.
3. 하늘에서 자주색 줄 땅에 닿고, 줄 끝에 금빛 상자 매달림—그 속에 알 여섯 개 나옴.
4. 알 여섯 아이 나옴, 십여일 만에 구척으로 자라니 그 달 보름에 가야 임금 등극, 이를 수로이며, 나머지 아이도 오가야 임금이 됨.
5. 탈해의 왕위 도전과 변신 경쟁, 탈해 도망.
6. 구간등이 배필 맞이를 권하자, 왕은 천명을 기다리겠다 함.
7. 왕이 신하를 바닷가에 보내 신부맞이, 왕이 직접 허황옥을 마중하여 혼인.
8. 황후의 자기내력담 진술—부모가 꿈에 상제의 명으로 자기를 수로에게 보내게 했다고 함.
9. 수로의 치세 입적.
10. 황후의 죽음, 10년 뒤 왕도 죽음—수능왕묘⁷⁾

위 『가락국기』 문맥에는 종족의 교류와 관련된 신화소가 유전자처럼 담지되어 있다. 일찍 다문화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고유문화를 민족문화의 정수라고 치부하는 연구 시각도 경계해야 마땅하다.⁸⁾ 이른바 남방계 문화 유입의 여러 현상을 확인한다. 일방적 전파론도 경계한다. 문화전파론에서는 문화라는 것은 이주, 무역, 전쟁 등의 방법을 통해 A국가에서 B국가로 전파될 뿐 자체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또 이 이론은 수용된 후 그것에서 변형되는 문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고착화된 전파론은 한계가 있다.

허황옥집단은 어디서 왔는가. 인도의 아유타국이다. 인도의 아유타국이 일연

7) 이창식, 『가락국』,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북스힐, 2008), 153~158쪽.

8) 이창식, 『길과 향가에 대한 고고민속학적서론』, 『비교민속학』 43집(비교민속학회, 2010), 72~99쪽.

에 의해 채록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허황옥의 흔적을 통해 다시 그들의 진실된 실크로드를 찾아 중국 사천성까지 40년을 추적한 고고학자 김병모가 있다. 해로와 육로 위에서 기억과 유적을 탐사한 셈이다. 그러나 그는 고고학적 전파론에 지나치게 매달렸다. 다시 과거를 보되 현재를 넘어 미래를 읽고자 할 때 허황옥 화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허황옥전승 자체는 다면적이고, 『가락국기』 끝부분에서 보이는 혁고정신(革古鼎新) 사례이다.

김병모 관심 전후로 하여 허황옥전승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신화와 불교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허황옥이 아유타국의 공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삼국유사(三國遺事)』 『가락국기』의 기사와 현존하고 있는 수로왕릉의 남릉정문(納陵正門), 안향각(安香閣)의 쌍어문양(雙魚紋樣), 『삼국유사』 어산불영조(魚山佛影條), 금관성파사석탑조(金官城婆娑石塔條)의 기사 등에 불교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 아유타국과의 연관성과 불교 전래 문제로까지 연장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었다. 수로왕 위주의 설화론의 접근도 많이 축적되었다.⁹⁾

허황옥의 출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유타국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통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가락국기』 기록에 보이는 아유타국을 사실 그대로의 국명으로 인정하고 이와 연관시켜 허황옥의 출자를 파악하는 입장이며,¹⁰⁾ 다른 하나는 이를 부회나 윤색된 표현으로 이해하면서 아유타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허황옥의 출자를 파악하는 입장이다.¹¹⁾

이 중 전자의 대표적인 주장을 보면 『가락국기』가 전하는 아유타국은 서기

9) 황패강, 『김수로왕신화와 구지가』, 『한국신화의 연구』(새문사, 2006), 155~180쪽.; 이강옥, 『서술원리의 특수성과 그 현실적 의미』, 『가라문화』 5집(경남대 가라문화연구소, 1987), 138~139쪽.; 김헌선, 『가락국기의 신화학적 연구』, 『인문논총』 6집(1998), 37~59쪽.; 임재해, 『가락국의 수로왕신화』, (2)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민속원, 2006), 336~338쪽.; 김화경 등 글 참고.

10) 김병모, 이종기 등.

11) 무함마드 간수(『한국불교남래설 고찰』, 『사학지』); 김용덕[『가야불교설화의 연구』, 『한국학론집』 21-22(한양대 한국학연구소)]; 김영태[『가야의 국명과 불교와의 관계』, 『가야문화』 6(가야문화연구원, 1993), 『가야불교의 사적 고찰』, 『가야문화』 10(가야문화연구원, 1997)]; 김영화[『가야불교의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대사론』 10(경남대사학회, 1997)] 등.

20년까지 존속한 인도 갠지스강 유역의 아요디아 왕국이었다는 설이다.¹²⁾ 허황옥의 시호(諡號)인 보주태후에 착안하여 인도 아요디아국-갠지스강 중류 사라유 강변 고대도시-에서 중국 사천성 보주일대로 옮겨와 살던 허씨 집단의 일부가 가락국으로 이주했는데 허황옥은 그 일원이었으며, 자신을 아유타국의 공주라고 소개한 것은 그 조상이 아요디아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¹³⁾ 인도 아요디아지방의 힌두교사원 정문에는 쌍어문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 형태가 수로왕릉정문과 안향각의 쌍어문과 닮았다고 한다. 내세우는 근거로서 쌍어문¹⁴⁾과 인도문자와 한국문자의 관련성 등을 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락국문화-이후 가야문화-의 기원을 인도에서 찾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¹⁵⁾

이외에 허황옥의 피부색이나 언어불통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 해류의 방향으로 볼 때 인도에서 한반도 남부로의 항해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아유타국을 인도에 비정하는 견해에 대해 비판하고 아유타국을 발해연안으로 비정하고 있으며 수로와 허황옥을 왕실의 족당(族黨)으로 이해하고 있는 주장도 있다.¹⁶⁾ 논지의 근거로 화천(貨泉)이 중국에서 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었음에도 김해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음을 들고 있다. 왜에서는 화천이 동기(銅器) 주조의 원료로 이용되기도 한 것으로 볼 때 교역의 결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¹⁷⁾

후자에 속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허황옥을 신령(神靈)과 결혼하는 제의(祭儀)를 담당하는 해변(海邊)의 무녀(巫女)로 보거나, 낙랑지역에서 도래한 유이민이거나 가락국을 수시로 왕래하는 상인집단의 일족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⁸⁾ 그러나 허황옥집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전까지의 중국군현과의 교역과 관련된 역사적 경험이 반영된 기록이라고 유추하고 있지만 허황옥 개인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¹⁹⁾

12) 이종기, 『가락국탐사』(일지사, 1977), 39~108쪽.

13) 김병모, 『가락국 허황옥의 출자-아유타국 고찰』, 『三佛金元龍教授 停年退任紀念論集』(간행위원회, 1987), 673~681쪽.

14) 김병모, 『한국인의 발자취』(김문당, 1994), 130쪽.

15) 이종기, 『춤추는 신녀』(동아일보사, 1997).

16) 김인배, 『해류를 통해 본 한국고대민족의 이동』, 『역사비평』 6(역사비평사, 1989), 122~123쪽.

17) 윤용구, 『삼한의 조공무역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62(역사학회, 1999), 22쪽.

18) 김태식, 『가락국기초재 허황후설화 성격』, 『한국사연구』 102(한국사연구회, 1998), 40~41쪽.

일본에 있는 가락국의 분국에서 결혼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온 귀족 처녀로 보고 있는 김석형은 이 기록이 5~6세기 가락계통의 왜 소국이 사람과 공물을 비치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면서도 뒤에서는 허황옥의 실체가 실물일 수는 없다고 시각을 보이고 있다.²⁰⁾ 정중환은 아유타국이란 표현은 불교적으로 윤색된 것이며 허황옥의 출자는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²¹⁾ 고고학적 연구에서는 쌍어문의 기원지는 서아시아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 우르크 IV 기 문화이며 신성(神聖), 풍요(豐饒) 등을 상징하였고 인도, 중국, 이집트 등지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현존하고 있는 남릉전각(納陵殿閣)들의 원형들이 조성된 시기가 정조 17년(1793)이라는 사실과 승려들이 이 지방의 목조 건축 공사에 동원된 전통이 오래 되었다는 점을 통해 남릉정문과 안향각에 새겨진 쌍어문이 조선 후기의 건축 기술이 있는 승려들에 의해 새겨진 것으로 이해하는 연구도 있다.²²⁾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쌍어문은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불교건축문화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기존 성과를 살피면, 축적된 전승물보다 특정 국면의 현상으로 다룬 측면이 짙다. 『가락국기』의 신화소를 분석하여 내린 결론이 미비하다. 오해된 부분을 비판적으로 고려하면서 『가락국기』의 후반부인 허황옥집단의 출자와 관련된 사료들을 검토하여 읽어보도록 하겠다.

건무(建武) 24년 무신(48) 7월 27일에 구간 등이 왕을 조알(朝謁)할 때 말씀을 올렸다.

“대왕께서 강림하신 후로 좋은 배필을 아직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이 기른 처녀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궁중에 뽑아 들여 왕비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왕은 말했다.

“내가 이곳에 내려옴은 하늘의 명령이다. 내게 짝지어 왕후로 삼게 함도 또한 하늘이 명령할 것이니 그대들은 염려하지 말라.”

19) 이영식, 『대가락과 대가야의 건국신화』, 『김해시가야사학술발표집』(김해시, 2002).

20) 김석형, 『고대한일관계사』(한마당, 1988), 395~396쪽.

21) 정중환, 『가야사연구』(해안, 2000), 72~73쪽.

22) 허명철(가야문화연구소) 등의 『허황후의 초행길』 참조.

드디어 유천간에게 명령하여 가벼운 배와 빠른 말을 주어 망산도(望山島)로 가서 서서 기다리게 하고, 또 신귀간에게 명령하여 승점(乘站) - 망산도는 서울 남쪽의 섬이요, 승점은 기내(畿內)의 나라다 - 으로 가게 했다. 갑자기 한 척의 배가 바다의 서남쪽으로부터 붉은빛의 돛을 달고 붉은 기를 휘날리면서 북쪽으로 향하여 오는 것이었다.

유천간 등이 먼저 망산도 위에서 횡불을 올리니 배 안의 사람들이 앞다투어 육지에 내려와서 뛰어왔다. 승점에 있던 신귀간이 이를 바라보고는 대궐로 달려와 그 사실을 아뢰니 이 말을 듣고 왕은 기뻐했다.

곧 구간 등을 보내어 목련(木蓮)의 키를 바로잡고 계목의 노를 들어 그들을 맞이하여, 곧 모시고 대궐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 배 안에 탔던 왕후는 말했다.

“나는 너희들과 본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어찌 경솔하게 따라가겠느냐?”

유천간들이 돌아가서 왕후의 말을 전달했다. 왕은 그렇게 여겨 유사(有司)를 거느리고 행차하여 대궐 아래로부터 서남쪽으로 60보 가량 되는 곳에 가서, 산 변두리에 장막의 궁전을 설치하여 기다렸다.

왕후도 산 밖의 별포(別浦) 나루터에 배를 매고, 육지로 올라와서 높은 언덕에서 쉬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비단바지를 벗어서, 그것을 폐백 삼아 산신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이 외에 시종(侍從)해은 잉신(嬰臣) 두 사람은 이름을 신보(申輔)·조광(趙匡)이라 했고, 그들의 아내 두 사람은 모정(慕貞)·모량(慕良)이며, 노비까지 합해서 20여 명이었다.

가지고 온 금수(錦綉)·능라(綾羅)와 옷·필단(疋緞)이며 금은·주옥과 경구(瓊玖)의 장신구 등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왕후가 점점 행궁(行宮)으로 다가가니 왕은 나와서 그녀를 맞이하여 함께 장막의 궁전에 들어갔다. 잉신 이하의 여러 사람들은 섬돌 아래로 나아가서 임금을 뵈고 즉시 물러갔다.

왕은 유사에게 명령하여 잉신의 부부를 인도하게 하며 말했다.

“잉신은 사람마다 각방에 머무르게 하고 그 이하의 노비들은 한 방에 대여섯 명씩

있게 하라.”

왕은 그들에게 난초로 만든 음료와 혜초(蕙草)로 만든 술을 주었다. 무늬와 채색이 있는 자리에 재웠으며, 의복 필단·보화도 주었다. 그리고 군인들을 많이 모아서 그들을 지키게 했다.

이에 왕은 왕후와 함께 침전에 있는데, 왕후가 조용히 왕에게 말했다.

“저는 아유타국(阿踰陶國)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許)라 하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열여섯 살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올 5월 달에 부왕(父王)과 모후(母后)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내외가 어젯밤 꿈에 함께 하늘의 상제(上帝)를 뵈오니 상제께서 가락국왕 수로는 하늘이 내려보내 왕위에 오르게 했으니 신성한 분이란 이 사람이며, 또 새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어 배필을 삼게하라’ 하시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상제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부모와 작별하고 그곳 가락국을 향해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에 떠서 멀리 증조(蒸棗)를 찾고, 하늘로 가서 멀리 반도(蟠桃)를 찾아 지금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용안(龍顏)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말했다.

“나는 나면서부터 자못 신성하여 공주가 먼 곳으로부터 올 것을 먼저 알았으므로 신하들에게서 왕비를 맞이하자는 청이 있었으나 굳이 듣지 않았소. 이제 현숙한 그대가 스스로 왔으니 이 사람으로서는 다행한 일이오.”

드디어 혼인하여 이틀 밤과 하루 낮을 지냈다. 이에 그들이 타고 왔던 배는 돌려보냈는데 뱃사공은 모두 열다섯 명이었다. 각각 쌀 열 섬과 배 서른 필을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

8월 1일에 왕은 대궐로 돌아오는데, 왕후와 함께 수레를 타고 잉신 부처도 나란히 수레를 탔다. 중국의 각종 물품도 모두 실어 천천히 대궐로 들어오니, 시각-동호(銅壺)는 물시계 -은 오징이 되려 했다. 왕후는 중궁(中宮)에 거처하게 하고 잉신 부처와 그들의 노비들에게는 비어 있는 두 집을 주어 나누어 들게 했다. 나머지 종자들에게도 스무 칸이 넘는 빈관(賓館) 한 채를 주어 사람 수를 보아 적당히 나누어 있게 하고, 매일 주는 물품은 풍부했다. 그리고 그들이 싣고 온 진귀한 보물은 내고(內庫)에 간직

해두어 왕후의 사시 비용으로 쓰게 했다.²³⁾

위 『가락국기』의 전승문면에는 구간들이 수로왕에게 자신들의 자녀 중 왕비를 선택할 것을 청하였는데 수로가 이를 거부한다. 이후 허황옥을 왕비로 맞아 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로왕이 구간들과의 혼인관계를 거부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겠으나, 수로왕이 구간집단에 대해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로왕의 이와 같은 행동이 구간집단과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는 허황옥의 도착에서 혼인에 이르는 과정 속에 구간들이 실무자로서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로가 구간집단이 아닌 외부의 세력에서 왕비를 구하고자 한다는 점과 그것이 천명(天命)의 계시형을 통해 합리화된다는 사실이다.²⁴⁾

다음 허황옥집단이 타고 온 배에 대한 기록을 주목한다. 붉은 빛의 돛과 깃발을 단 범선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고국으로 왕래하는 배들이 상당히 화려한 것이었고 가락계통을 표시하는 독특한 빛깔을 쓴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붉은 빛이 가락국을 상징하는 색이라는 주장은 허황옥을 외래계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락국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가락국에서 붉은 빛과 관련되는 기사는 수로가 구지봉에 강림하는 기사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허황옥이 붉은 빛의 돛을 달고 왔다는 사실은 수로집단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들이 같은 계통의 문화를 보유한 세력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허황옥집단이 외래계 세력임이 문면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허황옥이 가락국출신이라는 가정보다는, 수로집단의 출자와 허황옥의 출자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왕후도 산 밖의 별포(別浦) 나루터에 배를 매고, 육지 로 올라와서 높은 언덕에서 쉬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비단바지를 벗어서, 그것을 폐백 삼아 산신에게 바치

23) 『삼국유사(三國遺事)』 卷2 紀異2 駕洛國記條.

24) 김병모, 『김수로왕 연구』 [『민족과 문화』 6(1996)] 등 논저들이 지속적으로 이를 보여주고 있다.

는 것이었다.

이 외에 시종(侍從)해운 잉신(滕臣) 두 사람은 이름을 신보(申輔)·조광(趙匡)이라 했고, 그들의 아내 두 사람은 모정(慕貞)·모량(慕良)이며, 노비까지 합해서 20여 명이었다.

가지고 온 금수(錦綉)·능리(綾羅)와 옷·필단(疋緞)이며 금은·주옥과 경구(瓊玖)의 장신구 등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왕후가 점점 행궁(行宮)으로 다가가니 왕은 나와서 그녀를 맞이하여 함께 장막의 궁전에 들어갔다. 잉신 이하의 여러 사람들은 섬돌 아래로 나아가서 임금을 뵈고 즉시 물러갔다.

왕은 유사에게 명령하여 잉신의 부부를 인도하게하며 말했다.

“잉신은 사람마다 각방에 머무르게 하고 그 이하의 노비들은 한 방에 대여섯 명씩 있게 하라.”

왕은 그들에게 난초로 만든 음료와 혜초(蕙草)로 만든 술을 주었다. 무늬와 채색이 있는 자리에 재웠으며, 의복 필단·보화도 주었다. 그리고 군인들을 많이 모아서 그들을 지키게 했다.²⁵⁾

위 대목은 허황옥이 벌포 나루목에 도착한 후 산령에 폐백을 바친 사실과 집단의 구성원과 가지고온 물품들에 대한 소개와 처분에 대한 부분이다. 허황옥이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폐백으로 바친 행위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초행지를 통과할 때의 통과예의로 이해하면서 비단바지는 허황옥의 높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수식으로 보거나, 가락국에 산신을 숭배하는 신앙의 형태가 존재했었는데 허황옥집단이 이러한 토속신앙과 화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혹은 산령이 지주신의 존재이며 외래자가 그 곁을 통과할 때 의복의 일부를 폐백으로 바친다는 습속에 유래하는 전승으로 보거나, 이를 그 동안 바다에서의 긴 여정이 끝남에 대한 감사와 함께 대지의 생육을 기원하는 행위라고 하였다.²⁶⁾ 이외에 자기 자신을 가야의 땅에 바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는 수로와

25) 『삼국유사(三國遺事)』卷2 紀異2 駕洛國記條.

26) 김두진,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일조각, 1999), 238~239쪽.

의 합일(合一)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분석들은 대체적으로 허황옥이 외래세력이며 토착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두루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유타국(阿踰陀國)의 비단 짜기 기술의 전래와 떠오르는 섬 망산도의 망제(望祭) 및 붉은 돛과 깃발 등과 관련된 점이다.

별진포 망산도-본래 수중 섬, 진해 용원동 해변, 기출변 연계²⁷⁾-망제는 실크로드의 문화접변 행위다. 허황옥이 수로를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천명에 의한 것이며 수로 역시 왕비의 간택은 천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구간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천명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화의 특성상 이들의 결합에 대한 신성성과 정통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들의 문화적 배경이 유사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수로집단의 등장과 시간적 차이를 두고 허황옥집단이 가락국에 이주하였던 사실은 이미 수로집단이 구간 세력으로 대표되는 재지세력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허황옥집단의 지배층으로의 편입이 수로집단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수로집단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²⁸⁾

가야 건국신화인 김수로신화는 일찍부터 주목되었다. 이 신화의 향유기반에는 고대인의 교류분포, 활동범위와 생활방식이 녹아 있다. 고대인의 삶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길의 이동 기록을 확인하였다. 신화주체의 자취는 길과²⁹⁾ 맞물려 있다. 길은 이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심상에 자리함을 확인하였다. 고대 승려들을 포함한 상인집단은 실크로드를 따라 물류, 구도 교류를 하였다. 고대인들은 교류 차원에서 실크로드 여행을 하였다. 길은 문화의 다양한 통로인데 실크로드는 문화의 이동과 정착이 이루어진 상징루트이다. 고대로부터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문화변동과 문화접촉이 실크로드를 통해 전개되었다. 문화권역 구분 역시 길을 통해 이루어졌다. 실크로드의 영역으로 인해 종족과 지역, 종교의 경계에 따라 독자적인 문화유산을 창출하였다. 결국 실크로드 위에서 허황옥집단과 김수로집단이 접촉하여 혁고정신의 가야문화권을 형성한다.

27) 이만운(1723~1797) 등, 『증보문헌비고』 42권 제계23.

28) 이옥려, 「한·중 허황옥에 관한 문화관광콘텐츠 비교연구」(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2011), 15~25쪽.

29) 김병모, 『허황옥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역사의 아침, 2008).

허황옥전승에 대한 김병모 읽기³⁰⁾는 자못 신화추적론을 떠올리는 다큐멘터리처럼 연상하게 한다. 고유적인 문화인자도 고대일수록 제외와 신화의 국면과 맞물려 있고 비교의 교류적 요소도 있다. 고증의 작업과 팩션(faction)의 장르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적 인식인데 허황옥신화의 일연식 글쓰기를 고려해야 한다. 김수로신화에 대해 팩션의 이해는 영상스토리텔링의 창작원천을 제공하는데 한발 나아가 다문화의 이주와 정착 사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암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허황옥의 신화적 스토리텔링과 킬러콘텐츠가 풍부해지리라 전망한다. 뒤집어 말하면, 김수로 중심에서 허황옥 중심으로 비교민속학적 읽기를 권고한다.

신화 속의 심상지도를 그리면서 그 가치를 오늘 여기 핵고정신의 값어치를 찾아야 한다. 연구사에서 주로 내부 문맥 위주로 읽었다면 지명이나 현장과 같은 구술자료를 통해 신화의 문화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실크로드 위의 신화소의 유전자는 매우 값진 의미가 있다. 곧 허황옥집단이 가져온 외래문화-인도 북부, 중국 사천성 일대, 태국 방콕 북부, 일본 규슈 동북방 등-에 대해 고행과 변이형이 있다.³¹⁾ 특히 능(綾)과 라(羅)의 선진기술은 비단옷의 신성성과 짜기의 실용성을 통해 도래집단으로서 지모신격의 위상을 높였을 것이다. 허황옥 관련 유무형유산에는 역동적인 이주문화가 깊이 스며있다.

김해시 수로왕릉 정문 쌍문은 아유타국 등 실크로드의 교류적 상징물이다. 비록 18세기 정문 건축이라 허더라도 명태 두 마리처럼 불교 영향으로 지속된 측면이 있다. 구산동에 소재한 허황옥의 무덤 앞에 있는 비석이 있다. 비문 왼쪽에 허황옥을 지칭하는 ‘보주태후(普州太后)’란 글귀가 있다. 이는 파사탑 돌편과 함

30) 김병모의 『김수로왕비 허황옥』에는 허황옥이 인도의 아유타국 출신이라는 사실은 가야를 소개하는 글에 김병모는 이를 해명하며 쌍어문을 매개체로 삼았다. 과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아시리아에서 이란과 아프카니스탄 지역, 간다라 지역을 거쳐 인도의 아요디아(아유타국)까지 쌍어문은 출현하였고, 이후로는 중국의 보주를 거쳐 운남, 무창을 지나 가야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다만, 중국의 보주에서 쌍어문을 찾아내지 못 한 점과 보주에서의 허씨 집성촌이 허황옥의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단견의 결론이 아닌가 여겨진다. (블로그 김병모<김수로왕비 허황옥> <http://blog.daum.net/nagun/13735659>) 참조

31) 김문태, 『되새겨 보는 우리 건국신화』(보고사, 2006), 121~140쪽.

계 실크로드, 바다의 뱃길이 기념비적으로 나타난 전승물인 셈이다. 허황옥집단 본래 민속유산, 이주과정의 변이형 민속유산, 이주 후 가야 융합형 민속유산을 좀 더 따져야 한다.

Ⅲ. 김수로신화에서 허황옥신화로 바뀌읽기와 팩션

허황후는 국제결혼을 통하여 인도 아유타국에서 가야로 시집오면서 가져온 파사석탑과 더불어 불교를 최초로 전래하였다는 것이다. 중국 모화사상에 경도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AD 372년 중국에서 다소 강압적으로 고구려 소수림왕께 전파하는 왕권불교로 이것이 한국 최초의 불교전래로 기록하고 있으나, 고려 충렬왕 때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는 AD 48년 허황후가 파사석탑과 함께 최초로 전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삼국유사』의 기록은 전설인양 정사로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학계의 흐름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허황옥 일행 속의 장유화상과 연결하여 남방불교의 전래가 한 축을 이룬다.

『삼국유사』 금관성(김해) 파사석탑 편에 이 파사석탑은 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이 인도 아유타국-서기 48년 서역 인도 유타 프라데쉬주의 아요디아-의 공주로서 왕비가 되기 위하여 가야국으로 항해하여 올 때 가져온 것이며, 공주가 양친의 명을 받들어 바다를 건너 동으로 항해 가야국으로 올 때 바다 신격인 파신(波神)의 노여움을 만나 항해를 할 수 없어 다시 돌아가 부친계 사실을 고하니 부왕께서 이 탑을 싣고 가게 하여 무사히 가야국에 도착할 수 있게 하였다³²⁾는 것이다. 이 탑은 모가 진 사면의 5층이고 조각이 매우 기이하며, 조금 붉은 빛의 반점이 있고 석질이 좋아 한국에서 나는 돌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다.³³⁾ 이 탑이 파도신(波申)을 눌러 파도를 진정시키므로 일명 진풍탑(鎮風塔)이라고도 한다. 사람들이 이 탑의 돌을 가지고 항해나 고기잡이를 가면 파신의 노여움을 사

32) 『삼국유사(三國遺事)』 卷3 金官城婆娑石塔條.

33) 성호경, 『사녀가의 기원과 페르시아계 시가의 영향』, 『신라학연구』(태학사, 2008), 223쪽.

지 않는다는 속신관념으로 남몰래 조금씩 떼어가 망가뜨렸기 때문에 사각형의 돌이 마치 원형처럼 망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돌 효험, 뱃길 신 등장, 인도 의례 계시 등이 바다 실크로드를 통해 전승되었다. 일찍부터 바닷길을 통해 문화를 인식하였다. 길 위의 역사는 문헌보다 구술의 가치를 보여준다. 길은 문화 주체에 의해 고대로부터 다양한 접촉과 변이를 만들었다. 길의 기록은 마치 인류의 활동 반경의 선같이 나타난다.³⁴⁾ 종족 간의 경합과 이동 역시 길의 방향에 따라 결정된 듯하다. 허황옥전승으로 살펴볼 때 그 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가야의 고대 경영 이미지는 김해시 무역항 기능(고고유물 입증)과 실크로드 허브를 보여준다. 고대 김해는 실크로드 플랫폼이었다. 특히 바닷길은 문화교류의 충격과 적응 원리를 곳곳에 남겼다.

그 한 사례가 서불설화다. 이 설화의 이주-정착에는 주술, 종교, 과학이 엉켜 있다. 팩션의 가치창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³⁵⁾ 신화유산의 기원론 허구와 전파론의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통섭적 연구로 진전되지 못했다. 역사학이나 고고학의 실증주의 잣대도 진정성 가치를 통해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 신화의 진정성에 비해 시각의 차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조작의 일면도 보인다. 호모노마드³⁶⁾ 미래로 보아 실크로드의 통시적 축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화 관련 국제결혼 담론의 진정성을 읽을 수 있다.³⁷⁾ 실크로드를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 알타이신화에 따른 실크로드가 있다.³⁸⁾ 길은 이동의 관점에서 골드로드와 실크로드 루트, 금관루트, 깃털 장식 모자 루트, 흑요석과 스페르르개 루트, 솔트로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둥이란 말이 요즘 말로 하면 나무터라. 두둥. 그 왜 그러냐하면 그게 조선사회 근대화되기 이전에는 거기서 장유장으로 해서 넘어오는 옛날. 그 인자 고갱길이 있어 요 버들치 고개니 비단 고개니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마을에 노파 노인들이 들으니

34) 윤명철, 『바닷길은 문화의 고속도로였다』(사계절출판사, 2000), 25~121쪽.

35) 이창식, 『서불설화의 동아시아적 성격』, 『어문학』 88집(한국어문학회, 2005), 231~252쪽.

36) 자크 아탈리, 이효숙 역, 『호모노마드』(웅진, 2010), 41~53쪽.

37) 이창식, 『신라인 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온지논총』(온지학회, 2009), 9~39쪽.

38) 박시인, 『알타이문화기행』, 청노루, 1995, 269~277쪽, 『알타이신화』(청노루, 1994), 29~31쪽.

간. 자기 젊었을 때만 해도 주로 김해를 갈라면 이 고개로 넘어 갔다. 장유로 해서. 거 트림없지유 그래가 그러면 그 길로 넘어갔는데 허황후가 거기에서 가락국기에 의하면 옷을 벗어서 바쳤다. 그러면. 고대 인도사를 연구해 보니까 고대 인도사람은 자기 정조를 바치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주는. 남자에게.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인도제도니깐 자기가 인제 그래 한다. 그러면은 얘길 그 당시에 이제 동남 동북아 사회가 유목사회가 농경사회. 유목사회로 전환 될 때거든. 중국에는 비씨 3세기. 진시황 통일할 때 그 때구. 인도는 조금 늦은 그때 되니까 아유디아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하니까. 그러면 유이민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 아름다운 공주가 있고 마침 총각이고 하니까. 여길 통해서 인도에. 그 당시 인도가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 가능했다. 우째서 가능하나? 인도 사람이 나타나면은 살생을 주로 한다. 이래보고 겁을 먹고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승녀를 대동시켰다. 그래서 문화적. 종교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과 살생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했다. 그러면 허황후의 오빠가 장유화상 즉 스님으로 변신을 해서 그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가야 불교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가 인제 옷을 벗을 때가. 비단치고개다 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말 저말 해 쌓는 기라 뭐 왜 옷을 벗어주느냐. 그래 제가 그렇게 해서 인도의 고풍이 그런 것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거기를 넘으면 명월산이고. 지금 흥국사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집이 없으니깐 임시 막을 만들어가 인제 남녀 교류를 한기라. 그러면 꼭 예식이 필요없잖아요. 옛날에는 사랑을 하게 되면 만나고 그래 인제 합방을 하고. 수로왕이 해 놓으니까 해필 그때 보름이라. 아 달이 밝구나 그래서 명월산이다. 그래 인제 그 뒤에 사암을 짓는데 말하자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흥국사다. 거기 가면 뱀이 감싸안은 불상이 조각이 돌이 있는데.³⁹⁾

장유화상의 존재가 보인다. 후대 문헌에 허황옥은 가야의 초대 왕 수로왕의 부인으로 허황후 또는 보주태후라고도 한다. 본래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 48년에 오빠 장유화상(長遊和尙)과 수행원들과 배를 타고 가야에 와서 왕비가 되었다. 거등왕을 비롯해 아들 10명을 낳았다. 그녀의 나이(156살)은 수로왕과 9살

39) 제보자: 이도재, 김해시 동상동 637, 2006년 7월 16일 필자 채록(장보고재단 해양민속조사 프로젝트).

연상의 나이 차로, 수로왕의 나이(157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는 가야 사람들이 자신의 시조에 신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자 과장된 표현이 있던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가야지역에 불교를 처음 전래했다는 설이 있다.

바다야. 바다였고 전설에 의하면 다 바다고 여기 인자 개천 이름이 신어천이라. 그거 할 때 인자. 김해 김수로왕이. 저걸 할 때 정치를 하고 정사를 볼 때. 그때 당시는 여 위에 영구암에 계셨답니다. 내려와서 초선대 산에. 임금님하고 장유화상하고 바둑을 두고 놀았다는. 여기 위에서 그걸 하면 요 밑에 김수로왕이 깃대를 흔들면 장유화상님이 여 개천을 따라 배를 타고 내려와서 그거를 했다는 그런 전설이. 지금 현재 남은 기록이 없으니깐 그래했다는. 입으로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그런게 있어요.⁴⁰⁾

김해지역에는 장유화상과 신어 이야기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불교의 승려였던 친정오빠 장유화상은 금관가야 지역에 장유암(長游庵)이란 사찰을 짓고 불상을 모셨으며 이후 가야지역에 불교가 전래되었다. 이 점도 지역민들의 진정성 위주로 살펴야 한다.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장유암(長游庵) 경내에는 장유화상사리탑이 현존하고 있다. 장유화상의 사리탑은 1983년 7월 20일 경남도 문화재자료 31호로 등재되었다.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오지 않고 아요디아 이민자들이 거주하던 지금 중국 쓰촨성 안악현에서 건너왔다는 설도 있다. 인도의 도시국가였던 아요디아(ayodhia: 신어국)는 태국에도 아유타야라는 식민도시를 건설하였고, 중국 서남부 쓰촨성 주변에도 건너와 이민촌을 건설하였다. 안악현 근처에 보주라는 마을이 있으며, 쓰촨성의 안악현과 보주 지역은 허씨(許氏)들의 집성촌이자 아요디아에서 이민 온 인도계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40) 제보자: 주일스님,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동 초선대, 2006년 7월 16일 필자 채록(장보고재단 해양민속조사 프로젝트).

“저는 아유타국(阿踰陁國)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許)라 하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열여섯 살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올 5월 달에 부왕(父王)과 모후(母后)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내외가 어젯밤 꿈에 함께 하늘의 상제(上帝)를 뵈오니 상제께서 가락국왕 수로는 하늘이 내려보내 왕위에 오르게 했으니 신성한 분이란 이 사람이며, 또 새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어 배필을 삼게하라’ 하시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상제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부모와 작별하고 그곳 가락국을 향해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에 떠서 멀리 증조(蒸棗)를 찾고, 하늘로 가서 멀리 반도(蟠桃)를 찾아 지금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용안(龍顏)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말했다.

“나는 나면서부터 자못 신성하여 공주가 먼 곳으로부터 올 것을 먼저 알았으므로 신하들에게서 왕비를 맞이하자는 청이 있었으나 굳이 듣지 않았소. 이제 현숙한 그대가 스스로 왔으니 이 사람으로서는 다행한 일이요.”

드디어 혼인하여 이틀 밤과 하루 낮을 지냈다. 이에 그들이 타고 왔던 배는 돌려보냈는데 뱃사공은 모두 열다섯 명이었다. 각각 쌀 열 섬과 베 서른 필을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⁴¹⁾

인도계 이주민 중 고위직에 오른 인물 중에는 당시 한나라의 황제 선제의 후궁이 된 허씨가 있었다. 선제의 장인에 해당되는 평은후 허광한도 쓰촨성 출신으로, 허황옥 역시 그의 일족으로 추정하는 설도 있다. 그녀는 10명의 아들 중 2명에게 허씨 성을 쓰게 해달라고 수로왕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이후 모친의 성을 따라 허씨 성을 사용하던 두 왕자로부터 한국의 허씨 성이 유래되었다.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약을 생산하는 커다란 나무의 뿌리를 보호하는 물고기 두 마리 이야기를 통해 물고기가 인류를 모든 질병에서 구해준다는 믿음에서 신년축제 때 금붕어를 사며, 일본에서는 가족이 모두 건강

41) 『삼국유사(三國遺事)』 卷2 紀異2 駕洛國記條.

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고이노보리’ 민속축제 때 종이로 물고기를 만들어 장대에 매단다. 이처럼 쌓어는 사원의 대문-유적-파사사탑. 쌓어문, 물고기문양 등-에서 군왕이나 신을 지켰고, 신령스러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막이나 물속에서 버텨 서 있기도 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을 달리는 말의 이마나 안장에도 쌓어는 수호신으로 매달려 있었고, 자동차나 인력거에도 수호신으로 장식되었다. 인도 북부 실크로드 근접지역에도 부적처럼 장식이 보였다. 중국에서는 여행자들의 숙소나 식당, 돈을 지키는 존재로 대접받았다.

쌓어는 김해 플랫폼에서 허황옥의 표면적 유전자 깃발로 남았다. 김해지역 전설에는 신성물고기, 범공양 신수로 남아있다. 김해 신어산(진산), 은하사, 동림사 대응전 수미단과 들보, 납릉정문 등 살아있다. 한국에서는 왕릉의 대문과 부처님을 모시는 수미단에 장식되었고, 왜국에서는 여왕의 옷을 장식하는 무늬로, 후세에는 재물신을 모시는 이나리 신사(神社)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고 한다. 쌓어는 북어 두 마리와 상통한다. 한국 민속에도 오래 남아서 가게, 차트링크 안이나 식당의 입구 안쪽에 매달린 북어 두 마리로 끈질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에서는 물고기가 무언가를 보호하는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와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들어왔고, 이 사상을 전파한 사람들의 이동 흔적이 세계 곳곳에 쌓어문으로 남아 있음을 사십 년간의 추적으로 밝혀냈다. 생생한 현장기록으로 유라시아 역사의 주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글쓰기를 통해 힌두교와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문화권까지 널리 퍼져 있는 쌓어신앙의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김해 김씨, 허씨 유전자처럼 쌓어의 속신관념에는 실크로드의 문화적 친연 화소가 내재되어 있다.

유목민들에게도 퍼졌다. 이런 과정에서 쌓어신앙은 각 지역의 토착신앙-가야 경우는 거북-의 내용들과 섞여서 인도 대륙에 흡수되었고, 그것이 힌두교와 불교에 스며들었다.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 중앙아시아를 장악한 스키타이족들은 타고 다니던 말의 이마에 쌓어문을 부적으로 달고 다녔고, 말안장도 쌓어문으로 장식하였다. 그 전통은 오늘날 파키스탄 간다라지방-백제 불교 도래지 범성포 마라난타 출생지-을 운행하는 자동차에 그려진 쌓어문으로 연결

되어 있다. 그런 쌍어신앙이 인도인의 이민으로 중국의 운남, 사천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퍼져나갔고, 북쪽으로는 라마교를 통해 몽골의 초원 민족들에게도 전달되었다. 이렇게 하여 쌍어신앙은 사천 지역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허황옥 일행에 의하여 가락국에 퍼졌고, 그것은 다시 가락국 출신들의 일본 이민으로 일본에까지 퍼지게 되었다.⁴²⁾

만물의 수호신 쌍어다. 불가에서는 물고기가 석가모니를 보호하는 동물로 되어 있으며, 몽골의 풍속에는 물고기가 사람보다 눈이 좋아서 물속에서도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지 또는 위험에 처했는지 살피며 밤이나 낮이나 자지 않고 사람을 보호하는 신적(神的)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몽골의 전통종교인 라마교에서는 물고기를 팔보(八寶) 중 하나로 여기며, 그래서 몽골인들은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물고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나 꽃, 신관(神官)이나 신물 등을 보호하기도 한다. 수로왕릉의 쌍어는 가운데 탑을 보호하고 있으며, 김해의 은하사에 있는 쌍어는 가운데 꽃을 보호하고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화를 보여주는 페르가몬 박물관의 한 방에는 높이가 사람 키만 한 커다란 수조(水槽) 바깥벽에 특이한 그림이 조각되어 있다. 어피복(魚皮服)을 입은 사제가 넘쳐흐르는 물병을 손에 든 수신(水神) 오아네스를 호위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물고기 상징의 복장을 한 사제는 초자연적 능력을 갖춘 물고기, 곧 신어(神魚)를 의미한다. 당시 한나라의 그 해인 서기 47년에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 가락국으로 왔음을 밝혀냈다. 김병모는 허황옥의 선조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출발하여 대리국과 보주에 정착한 루트와 한나라 정부로부터 강제 추방되어 장강을 타고 가야국으로 갈 때까지의 루트를 집요하게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 루트는 실크로드와 관련이 있다.

고대인들은 바다 실크로드를 따라 물류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고대인들은 교류 차원에서 바닷길을 다녔다.⁴³⁾ 길은 문화의 다양한 통로인데 실크로드는 문화의 이동과 정착이 이루어진 상징루트이다. 고대로부터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문화변동과 문화접촉이 실크로드를 통해 전개되었다. 문화권역 구분 역시 길은

42) 서동철, 『김해 김수로왕릉의 쌍어문』, 『오래된 지금』(생각처럼, 2012), 127~135쪽.

43) 안경숙, 『바다를 통해 교류된 한국 고대문화』, 『항해와 교류의 역사』(김, 2003), 259~260쪽.

통해 이루어졌다. 실크로드의 영역으로 인해 종족과 지역, 종교의 경계에 따라 독창적인 문화유산을 창출하였다.

허황옥전승도 실크로드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김병모의 문화전파론은 이 점이 간과되었다. 고유적인 문화인자도 고대일수록 제의와 신화의 국면과 맞물려 있고 비교의 교류적 요소도 있다. 고증의 작업과 팩션(faction)의 장르적 인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허황옥신화에 대해 팩션의 이해는 영상스토리텔링의 창작원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의 근거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심상을 공유하게 한다. 허황옥의 신화적 스토리텔링 역시 이러한 기반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고대 가야 김해는 일찍 해류, 조류, 풍향 등을 통한 항로를 읽은 해양도시였다.⁴⁴⁾ 그 중심에 김수로와 허황옥이 있다. 김해, 대마도, 이키섬, 큐슈, 대만, 양쯔강 일대, 인도연안, 페시아아만 등으로 이어진 실크로드 허브였다.

서기 48년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은 친오빠 장유화상과 수행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락국으로 시집을 와 가락국의 초대 왕 김수로왕의 왕비가 되었고, 이듬 해, 거등왕을 비롯하여 아들 10명을 낳았다는 것이 기본 원형론이다. 이후 허황옥은 가락국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김수로왕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도 문화캐릭터론이다. 전자가 『가락기』에서 혁고(革古)의 외래원형이면, 후자는 정신(鼎新)의 창조수용 현상이다. 허황옥집단은 실크로드의 직리술(織羅術)은 주목된다. 더구나 생활양식, 불교사상, 도교사상, 정치제도, 경제교역 등 여러 측면에서 가락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민속양상에서 일생의례와 공동체놀이, 민속음악 등에 남방계 요소를 남겼다. 이는 한국 최초 다문화 소통론인 셈이다.

이러한 실크로드원형론은 팩션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실제로 남녀의 국제적 수평 만남, 불교적 사자후 전통, 놀이의 경주전통, 세시 관련 공동체놀이, 복식과 음식의 색미감, 차의식과 정차 등은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허황옥은 지금도 한국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의 가락국의 땅, 지금의 대한민국 김해에서는 허황옥을 기념하기 위해, 그에 관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가 지

44) 국립김해박물관, 『고고학이 찾은 선사와 가야』 특별전 도록(2000).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본 원형 연구와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 둘 다 미흡하고, 둘을 통섭하는 전략도 부재한 편이다. 최소한 『가락국기』에 기술된 희락사 모지사(戲樂思慕之事)⁴⁵⁾와 혁고정신(革古鼎新)이 필요하다. 김해축제에 희락의 마선경주⁴⁶⁾와 행차경마, 망제를 살려야 한다. 또 신어집단과 거북집단의 혁고정신형 융합을 창조하는 실크로드 해양도시 김해시의 IC를 부각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화론적 인식을 통해 허황옥전승물을 현대화해야 하는데 실제 킬리 콘텐츠가 피칭워크샵 형태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⁴⁷⁾ 김해시는 허황옥에 관한 문화콘텐츠개발 방안 중 허황옥전승 관련 만화와 e-book도 함께 창작하였다. 허황옥에 관한 만화는 김해시청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만화 내용은 짧고 간단한데,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거하여 허황옥의 출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만화를 처음 본 사람들로 하여금 허황옥에 대한 대체적 이야기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허황옥의 인물을 모델로 하여 창작된 문학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에서는 전기소설 『허황옥, 가야를 품다』가 있고, 2007년에는 허황옥과 김수로왕의 만남을 중심으로 창작된 만화 『구지가』가 나왔다. 2007년 가야문화를 소재로 한 창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중에서 허황옥과 김수로왕에 관한 만화 e-book 『구지가』가 만화영상 공모전의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e-book 『구지가』는 주로 김수로왕의 탄생설화, 허황옥과의 결혼을 권선징악을 바탕으로 코믹하게 재구성하여 표현한 이야기의 콘텐츠물다.

허황옥전승에 관한 문화관광지를 말할 때, 연상하여 떠오르는 곳은 한국 김해에 있는 가야시기의 허황옥 유적지다. 최근 허황옥 유적지의 주요 개발현황에 대해 몇 개 단위를 볼 수 있다.

수릉원

수로왕과 허황후가 함께 거닐었던 정원과 같은 이미지로 수로왕릉과 가야왕들의

45) 나경수, 『한국의 신화』(한얼미디어, 2005), 264~265쪽.

46) 김익두 외, 『한국 신화 이야기』(지식산업사, 2012), 199~205쪽.

47) 김용환, 「경남권 킬리콘텐츠 소재 연구: 가야 설화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28집(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148~149쪽.

묘역인 애성동고분군을 이어주는 단아한 숲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수릉원 안에 수로왕과 허황후의 만남을 테마로 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 이 생태공원에 들어가면 자연과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역사와 자연이 잘 어울린 작품이다. 김해의 관광에서 이 수릉원은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다.

제사

왕이 세상을 떠나자 나라사람들은 부모를 잃은 듯이 슬퍼하고, 대궐의 동북쪽 평지에 빈궁(嬪宮)을 세우고 수릉왕묘(首陵王廟)라 하였다. 그 아들 거등왕으로부터 9대손 구형왕까지 이 묘에 배향하였다. 매년 정월 3일과 7일, 5월 5일, 8월 5일과 15일에 풍성하고 정결한 제전으로 제사를 지내었다.⁴⁸⁾ 『증보문헌비고』에도 제사 기록이 있다.

수로왕비릉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가야시대의 능묘로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의 왕비 허황후의 왕비릉이다. 능 앞에는 1674년 수축 때 세운 “가락국수로왕비 보주태후 허씨릉”이라는 글씨를 2행으로 새겨놓은 능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허황후가 배를 타고 시집을 당시, 바람과 풍랑을 잠재웠다는 유래가 얽힌 파사석탑이 흥미롭다. 허황후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열 아들 중 두 아들에게 자신의 성인 허씨를 따르게 하여 김해 허씨성이 유래되었고 그로 인해 김해 김씨와 허씨는 혼인이 금지되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 수로왕비릉이 한국 국가 사적 제74호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 능원을 찾으면 관광해설사가 있는데 관광객들에게 허황옥의 일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허황옥이 어떻게 가락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수로왕비가 될 수 있었는지, 허황옥이 가락국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었는지, 그는 가락국에 어떤 공헌을 했었는지 등에 대해 관광객들은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허황옥이 가락국에 도착한 망산도, 수로왕이 왕후를 마중한 기념비석 등도 관광할 만한 장소이다.

48) 『三國遺事』卷2 紀異2 駕洛國記條.

망산도

어느 날 바다 서남쪽에서 붉은 색의 돛과 기(旗)를 단 돌로 만든 배가 허황옥일행을 태우고 나타나자 수로왕이 직접 나와 허황후를 맞이하여 혼례를 올리고 150세가 넘도록 장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허황옥집단이 타고 온 돌 배가 바다 속에서 뒤집혔는데, 그 곳이 바로 망산도에서 있는 바위섬인 유주암(維舟巖)이라고 한다. 이 망산도에 서면 2000년 전의 수로왕이 황후를 마중하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왕이 왕후를 마중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석까지 세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허황옥이 가락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시사한다.

허황옥 관련 연극과 축제

한국 문화관광부가 주최하여 2008년부터 시작한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사업의 주관단체로 선정된 김해여성복지회는 가야의 역사를 간직한 지역으로서, 김해에서 가야인의 삶을 다룬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다. 허황옥을 배경으로 제작한 연극『가야 여왕 허황옥』을 통해 그동안 김수로왕의 부인으로만 알려졌던 여성 허황옥을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휘하여 가야까지 온 이주여성이자 모험가로 차와 불교를 전해 준 문화인으로 가야와의 관계를 바꾸게 한 정치인으로 다채롭게 재조명한다. 또한 두 아들에게 자신의 성을 이어준 허황옥의 숨겨진 이야기와, 일본으로 건너가 최초의 통일 왕국을 건설했다는 그의 딸의 이야기를 통해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었던 가야인의 조화롭고 지혜로운 모습을 오래된 미래라는 비전 속에서 신비롭게 보여준다. 이런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에 충분히 경쟁력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허황옥 실버문화축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허황옥 실버문화축제는 김해 여성노인들이 허황후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등하고 문화적이며 국제적인 여성 활동을 지향하려는 문화제로 역시 그 심오한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오늘날에도 손색없는 평등사상과 문화성으로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지역의 자랑스러운 여성인물의 삶에서 여성들이 가져야 할 정신을 되새기고 여성이 가진 지혜와 여유와 따뜻함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는 축제, 그리고 이러한 여성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콘텐츠적 측면에서도 매우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축제를 통하여 국내 외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신화문화체험의 요소를 지닌 축제라 볼 수 있다. 이것의 고부가 가치를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김해시청의 문화관광 사이트에 들어가면 ‘남녀평등의 선구자 허황옥’이라는 홍보영상이 있다. 이 홍보영상은 양성평등의 모범을 실천한 허황옥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역만리 떠나면 인도 땅으로부터 시집와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자존의 힘을 보여준 허황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의 모습을 허황옥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 영상은 2008년도 한국 문화관광부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수상작이다. 뿐만 아니라 김해시청은 정부지원을 받아 더 나은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김수로왕과 그 왕비 허황옥의 능에 대한 CF를 촬영하였다. 짧은 CF를 통해 왕과 왕후의 능 전체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야 역사에 관심이 있지만 김해에 쉽게 갈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소통 방식임을 알 수 있다.⁴⁹⁾

스토리텔링의 영역에는 특별 영역을 무너뜨리고 즉각 반응이 가능하고 기존 가치를 넘어서고, 탈국가화로의 이행 때문에 평등주의적 상호패턴이 우선한다. 이에 잘 부합하는 코드가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적 공감대, 연대감을 만들어가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신화와 기억, 꿈과 감성, 상상력이 미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삶의 질과 재미를 보장할 것이다.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미래학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저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브랜딩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신뢰나 호감을 유발시키기 위해 지역의 특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독자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허황옥의 브랜드화 효과는 무엇인가. 김해지역의 문화콘텐츠 상품의 홍보도 여느 지역과 다름없이 단순히 볼거리, 먹을거리, 잘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차

49) 이옥려, 『한·중 허황옥에 관한 문화관광콘텐츠비교연구』(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2011), 26~55쪽.

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차원에 국한한 홍보를 탈피하여 지역설화를 스토리텔링함으로써 지역브랜딩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역설화의 창조기업화가 순기능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세계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관광시장에서는 공정무역 개념의 공정여행(fair travel)이 출현하고 대안관광, 책임관광이라는 관광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도 드러나고 있다.

허황옥과 관련된 테마파크 부문에는 가야역사테마파크가 있다. 김해시는 가야고도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12년 동안 공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수백억 원을 들인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착공에 들어간 가야역사 테마파크, 가야왕궁, 신화마을 등 건물 골조만 덩그러니 올라간 채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당초 지난해 말 완공하기로 했던 가야역사테마파크-백제역사테마파크에 비해 부진-는 그 동안 사업비 지원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공사가 중단돼 여기저기 파헤쳐진 채 방치되고 있다. 경제성 논란으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국비확보가 원활치 못했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앞으로 100억 원을 확보해 완공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⁵⁰⁾

또 다른 곳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에 조성된 해양드라마 세트장이 있다. 이곳은 창원시로 통합되기 전 옛 마산시가 드라마 ‘김수로’의 촬영을 위해 구산면 석곡리 일대 9천900여㎡의 부지에 가야시대를 상징하는 너와 지붕의 건물 25채와 가야 및 중국풍의 선박 3척을 갖추고 지난 2010년 봄에 만들었다. 가야 시조 김수로는 당시 해상무역을 통해 중국, 일본, 인도 등지에까지 진출한 찬란한 철기문화의 진수를 소개한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이곳 세트장 역시 가야인들의 바다에서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재현했다. 세트장 내 가장 큰 건물인 김해관에는 허황옥의 처소를 비롯해 가야 왕실의 회의 장소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각종 패널을 통해 당시의 외교 정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찬란한 철기문화로 대표되는 가야시대의 야철장 내부에는 용광로, 풀

50) KNN뉴스(<http://www.knn.co.kr>), 『애물단지 가야역사테마파크』, 2012년 2월 24일(금) 방송.

무 등을 재현해 당시 어떻게 철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⁵¹⁾ 드라마 김수로는 다른 한류형 사극에 비해 성공하지 못하였다. 앞서 제기한 팩션의 실크로드 개연성과 교류적 허구 감성이 혁고정신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해천문대는 경남 김해시 분성산(371m) 정상에 있는 천문대다. 가야의 역사를 간직한 곳답게 김수로왕의 탄생신화를 바탕으로 알의 형태로 만들었다. 가야와 천문대는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조합의 구성인데 뉴밀레니엄기념사업으로 천문대 건설을 추진한 김해시는 「가락국기」 신화적 스토리를 붙였다. 『삼국유사』에는 김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이 인도에서 배를 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첨단 항해 장비가 없던 시절에 별을 보고 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를 연결한 것이다.⁵²⁾ 실제로 바다 실크로드와 천문항해술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착안한 듯하다. 호기심과 재미의 영역을 좀 더 전략화해야 할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획기적인 발상전환과 기존 사업의 비판 위에 새판 짜기가 요구된다. 허황옥보다 더 좋은 다문화 한류 경향에 부합하는 캐릭터가 있는가. 앞서 보인 것처럼 기존 원형자원을 바탕으로 신화콘텐츠-드라마 김수로 사례-를 만들었으나, 연구에도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원소스의 왜곡으로 활용에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 허황옥스토리의 세계화 시각이 필요하다. 앞의 분석한 실크로드 위의 허황옥캐릭터를 살리고 「가락국기」 혁고정신의 가치를 되새겨서 김해시 이야기문화산업을 진전시켜야 한다. 허황옥 SMU 곧 허황옥콘텐츠 하나가 여러 유형의 문화상품(한국-인도 문화교류 한류상품)을 개발하게 한다. 실증적 분석과 통섭 연구 성과의 객관적 수렴, 교류 키워드의 가치 창조, 피칭워크샵 위주의 스토리텔링, 명품 문화콘텐츠상품 완성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⁵³⁾

앞서 논의한 대로 가야 김수로 위주가 아닌 허황옥 중심 실크로드의 쌍방향성을 살려야 한다. Story Finding(검증과 생산의 측면), Story Telling(가공과 유포의 측면), Story Storing(반응과 평가의 측면)을 동시에 구상해야 한다.⁵⁴⁾ 역사적 맥락과

51) 부산닷컴(<http://news20.busan.com>), 「‘바다 호령하던 군함’, ‘찬란했던 가야문화’ 당일치기로.

52)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 「아이들 가슴에 별 밤의 추억 하나쯤 심어 주세요, 2011. 12. 1.

53) 이창식, 「지역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가치창조」, 『어문론총』 53호(한국문화언어학회, 2010), 45~52쪽.

가치의 통찰 위에 지금 여기의 인간적 본질에 대한 비교민속학적 소양이 전제되어야 김해시의 한국-인도 문화프로젝트가 성공한다. 허황옥전승 중 무형유전자 곧 걸으로 보이지 않는 신화소, 정신소를 읽어야 한다. 한류와 인도 허황옥 스토리텔링마케팅이 요구된다. 인도 허황옥고향에는 김해시 김해김씨종친회에서 세운 기념비가 있다. 앞으로 한국-인도 상호 문화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향후 혁고정신형 한국-인도-중국 허황옥실크로드 세계화 프로젝트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⁵⁴⁾

IV. 맺음말

이 글은 「가락국기」 신화적 스토리의 혁고정신에 대해 비교민속학적 가치와 활용을 논의하였다. 「가락국기」는 실크로드 플랫폼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고대인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문화양식과 재화를 축적하였다. 고대 승려들도 실크로드를 따라 구도의 여행을 하였다. 이처럼 고대인들은 교류 차원-특히 페르시아를 포함한 인도문화권-에서 실크로드 여행을 하였다. 길은 문화의 다양한 통로인데 길 위에서 문화는 진화한다. 실크로드는 문화의 이동과 정착이 이루어진 상징루트이다. 고대로부터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문화변동과 문화접촉이 실크로드를 통해 전개되었다. 문화권역의 정체성과 구분 역시 실크로드를 통해 이루어졌다. 실크로드의 영역으로 인해 종족과 지역, 이념과 종교의 경계에 따라 독창적인 문화유산을 창출하였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허황옥 관련 유무형 자료는 문화콘텐츠 활용론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살폈다.

이 글은 허황옥전승에 대한 기존 성과의 반성과 오해의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한 사례로 김병모 읽기의 긴 여정에 1차 주목하였다. 2차로 고유적인 문화인자도 고대일수록 제의와 신화의 국면과 맞물려 있고 비교의 교류적 요소가 있음을

54) 이창식, 『설문대할망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은지논총』 21집(은지학회, 2011), 11~23쪽.

55) 실제적인 허황옥문화콘텐츠론(스토리텔링마케팅 포함)은 지면을 달리하여 다룬다.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의 혁신적 발상이 있어야 한다.

주목하였다. 상인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재화와 함께 문화를 축적하였다. 고대 허황옥집단은 실크로드를 따라 이주와 정착을 하였다. 이처럼 도래인들은 교류 차원에서 실크로드 수단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였다. 길은 문화의 다양한 통로인데 실크로드는 문화의 이동과 정착이 이루어진 상징루트이다. 고대로부터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문화변동과 문화접촉이 실크로드를 통해 전개되었다. 문화권역 구분 역시 길을 통해 이루어졌다. 실크로드의 개척과 소통으로 인해 집단이주와 국제결혼이 이루어졌다. 결국 허황옥의 김해 귀착은 실크로드 허브와 플랫폼의 상징을 보여주었다.

허황옥전승은 세계 고대문화교류의 대표 사례가 된다. 최초 김해지역의 실크로드 문화접변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날 오래된 다문화 화두가 내재되어 있다. 고유적인 문화인자도 고대일수록 제의와 신화의 국면과 맞물려 있고 비교의 세부 교류적 요소도 있다. 비교민속학적 시각에서 고증의 작업과 팩션(faction)의 장르적 인식 곧 혁고정신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김수로 신화를 포함한 허황옥전승에 대해 팩션의 접근은 영상스토리텔링의 창작원천을 제공한다. 허황옥신화는 거듭 다양하게 수용되어 왔다. 그 결과, 불교전래와 남방계 민속 요소(쌍어, 배말경주, 차문화 등)가 지속적으로 수용되면서 가야, 김해의 독자적인 공동체문화유산을 창출하였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 김광언, 『우리 문화가 온 길』, 민속원, 2001.
- 김문태, 『되새겨 보는 우리 건국신화』, 보고사, 2006, 121~140쪽.
- 김병모, 『한국신화의 고고민속학적 연구』, 『유송국박사화갑기념동양사상논고』, 간행위, 1983.
- _____, 『허황옥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 역사의 아침, 2008.
- _____, 『김수로왕비 허황옥』, 조선일보사, 2005.
- 김용환, 『경남권 킬러콘텐츠 소재 연구: 가야 설화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28집,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148~149쪽.
- 김 정, 『허황옥, 가야를 품다』, 푸른책들, 2010.

- 김태식, 『가락국기소재 허황후설화 성격』, 『한국사연구』 102, 한국사연구회, 1998.
- 나경수, 『한국의 신화』, 한얼미디어, 2005, 264~265쪽.
- 박계홍, 『비교민속학』, 형설출판사, 1984.
- 박시인, 『알타이신화』, 청노루, 1994.
- 성호경, 『사녀가의 기원과 페르시아계 시가의 영향』, 『신라항가연구』, 태학사, 2008, 223쪽.
- 안경숙, 『바다를 통해 교류된 한국 고대문물』, 『항해와 표류의 역사』, 숲, 2003, 259~260쪽.
- 윤용구, 『삼한의 조공무역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62, 역사학회, 1999.
- 이창식, 『설문대할망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은지논총』 21집, 은지학회, 2011, 11~23쪽.
- _____, 『길과 향기에 대한 고고민속학적 시론』, 『비교민속학』 43집, 비교민속학회, 2010, 72~99쪽.
- _____, 『신라인물 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은지논총』 23집, 은지학회, 2009, 7~41쪽.
- _____,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2008, 153~158쪽.
- _____, 『불국사와 석굴암 U-스토리텔링』, 경주시, 2010.
- 일 연, 『삼국유사』 2권 『가락국기』.
- 임재해, 『가락국의 수로왕신화』 (2),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민속원, 2006, 336~338쪽.
- 자크 아탈리, 『호모노마드』(이효숙 역), 웅진, 2010.
- 정수일, 『셀크로드학』, 창작과비평사, 2001.
- 정중환, 『가야사연구』, 해안, 2000.

Study on Truth of the Silkroad and Heo Hwang-ok

Lee, Chang-Sik*

This article was attempted to examine the meaning of Road. The Road is a passage of cultures. It is a process which migrations and settlements of cultures has been achieved from the Silk Road to the Salt Road.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the cultural fluctuations and the cultural contacts has been developed by the Road.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Road and Heo Hwang-ok myth with Comparative folklore(比較民俗學) approach.

Traders are accumulating commodities through the Silk Road. This is landscape along the Silk Road with the ancient monks. It is important to take ancient Silk Road trip in their exchanges. There is a variety of culture and culture of silk road settlement. This passage is made up of the symbols in the root. Ancient cultures and cultural contacts have been existed in the Silk Road. Due to the area of the Silk Road, religious boundaries and dependency on the species, local creative cultural heritage was created.

This holistic approach is an attempt of understanding tradition Heo Hwang-ok group identity. Pay attention to those case such as cleaning bottles. The more unique and cultural factor is also ancient and mythical phase coupled with the proposal and comparison of Exchange. Comparison of the folklore is the ever-evolving work and Pack breakfast never Visual (faction value) of the category needs to be aware of the enemy. Kim Su-ro of taste culture is understanding of myth about the creation of video

* Semyung University, professor

storytelling pack source. By doing so, it shall be abundant mystical storytelling of Heo Hwang-ok authenticity.

[Key-Words] Silkroad, Myth of Heo Hwang-ok myth, Storytelling, Faction, Comparative folklore

※ 이 논문은 2012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2년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2년 12월 21일 수정 완료하여
2012년 12월 24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